



오는 2016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착공과 동시에 철거될 광주시 남구 백운고가도로. 광주시는 이 구간을 철거한 뒤 860m 길이의 지하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지하도로와 200m가량 구간이 겹치는 도시철도 2호선은 지하도로 아래에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지하 5~20m에 건설...예산확보 관건

■ 광주시철도 2호선 과제와 전망

2016년 착공 즉시 백운고가 철거

광주시철도 2호선 41.7km 구간의 공사가 본격화된다. 총 사업비 1조 7394억을 들여 오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에 걸쳐 건설될 도시철도 2호선은 광주의 산업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선진 교통 인프라로서, 광주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업그레이드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사 기간이 길고 거역의 사업비가 투입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사가 제때 마무리되기 위해서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일정=올해 말까지 기본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할 뒤 2013년부터 17개월간에 걸쳐 기본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2014년 중반부터는 실시설계에 착수하게 되며, 계획대로라면 2016년 1월 첫 삽을 뜨게 된다. 공사일정은 2015년 중반 선정될 예정이다.

◇건설방식=대부분의 구간이 지

하 5~11m사이의 저심도에 건설되지만,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광주시의 특성상 일부 구간은 지하 20m 이상의 깊이에 건설된다.

대표적인 구간이 백운광장 구간이다. 광주시는 현재의 백운고가도로를 2016년 착공과 동시에 철거할 예정이며, 남구청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광주시는 백운고가도로를 철거한 뒤 이 구간에 860m 길이의 지하도로를 만들 계획이다. 이 지하도로와 200m가량 구간이 겹치게 되는 광주시철도 2호선은 지하도로 아래에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을 횡단해야 하는 남광주역 구간, 그리고 기존 도시철도 1호선과 교차하는 용봉천 복개구간 역시 지하 20미터 이상 깊숙이 파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광산구 접단

대교와 광산대교 구간은 노면전철 방식으로 조성된다.

◇예산확보=총 사업비로 예정된 1조7394억원 가운데 광주시는 5218억원,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채(10%)로 조달하게 된다. 광주시는 현재 기본·실시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26억원을 확보해 놓았으며 내년도 국비에 상의 깊이에 건설된다.

광주시는 공사 완공시점까지 연도별로 국비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며, 저심도방식으로 건설되는 광주시철도 2호선에 대해 국토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국비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비 확보로 완공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감안,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선건설=광주시는 광주역~무등경기장~터미널~시청 그리고 하남공단~송정공원 구간 등 2개의

지선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식사업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광주시는 일단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16년에 예정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3년 2호선 전 구간 완공 때 지선도 함께 건설·완공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2개 지선의 전체 길이는 20km 정도로, 8000여 명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선 건설 여부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린 셈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삼성 모바일닷컴 게임 40% 점유

광주 문화콘텐츠산업 선도업체

광주시 인력·마케팅 지원 '금성장'

① (주)인터세이브

광주 문화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인프라부터 정책지원까지 사업 기반이 갖춰지면서 서울 등 수도권 대형업체들도 광주행을 택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역 문화콘텐츠 기업 중 국내외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성공 신화'를 쓰고 있는 대표업체 5곳의 성공 배경과 향후 전망을 진단해본다.

모바일과 웹게임 개발체인 (주)인터세이브(대표 이갑형)는 세계적인 게임브랜드를 꿈꾸고 있다. 삼성 모바일 닷컴 게임 40%를 점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국내 100여개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 가운데 출시한 거의 모든 게임이 다운로드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주)인터세이브는 이달 중 국내외 게임시장을 선도할 수작 '레전드 오브 히어로즈'라는 게임을 내놓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이 회사의 게임들은 최고급 전

문가들이 제작한 섬세한 그래픽 처리와 탄탄하게 짜여진 스토리가 인기 비결이다.

지난 2000년 온라인 게임 유통 회사로 시작한 이 회사는 2005년부터 본격적인 모바일게임 개발과 보급에 뛰어들어 현재 종업원 30명에 연매출 15억원의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어려운 점도 많았다. 지역 게임 개발업체인 만큼 인력과 자금 확보에 애로를 겪었다. 지역의 젊은 전문인력들은 지방업체를 기피하고 모두 수도권 대형 업체로 빠져나가고, 서울의 창업투자사들이 투자 이후 관리문제도 지방 업체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광주시와 관련 기관들이 가뭄의 단비처럼 다가왔다. 광주시로부터 인력양성 및 채용,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갑형 대표는 "모바일 및 웹게임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광주에서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게임에 열정이 넘다른 직원들의 헌신과 광주시, 광주정보문화진흥원 등 관련 기관의 문화산업에 대한 빠른 이해와 지원 덕택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중국 게임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해외 전시회에 참가해 세계 시장에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주)인터세이브의 매출액 절반은 수출로 벌어들이고 있다.

광주시 무역사절단과 개발 박람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수출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어·일본어·중국어·아랍어·프랑스어권에 게임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본 시장을 전략적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다.

이 대표는 "광주에 글로벌 게임사문화교를 만들어 원하는 사람 모두가 게임 개발자로 커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광주의 젊은이 모두가 게임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보다 앞서가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준영 전남지사 시·군 순방 5개월 일정 마무리

열린 대화... 민원·현안 수렴의 장 됐다

박준영 전남지사의 시군 순방이 지난 8일 보성군을 마지막으로 5개월간의 일정을 마쳤다.

박 지사의 시군 순방은 전남 22개 시군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 현안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마다 연초에 시작하는 것으로 올해는 4월 중순으로 인해 일정이 늦어졌다.

전남도는 이번 순방이 도민들의 진솔한 의견수렴을 위해 사전에 질문지를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격의없는 대화를 유도해 생활민착형 민원과 현안을 수렴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존 순방의 틀을 완전히 바꿔 인터넷 신청 등을 통해 참가한 각계 각층의 주민들이 도지사과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벌여 행정기관과 주민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올해 순방에서는 시군단 평균 220



박준영 전남지사가 지난 4일 강진 군민과의 대화를 마친후 도암면 길바우영 농조합법인을 방문, 아스피라거스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 <전남도 제공>

명 꼴인 총 4790명의 주민들이 도지사와의 대화에 참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시군에서는 60건에 2169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현안 사업들 건의했으며 주민들도 각종 도로 확

포장 및 노인 여가시설 지원 등 159건의 다양한 건의를 했다.

전남도는 순방에서 접수한 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해 단기 및 중기 계획을 세워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장·군수가 건의한 60건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평가를 거쳐 시군별로 2억원씩 균등 지원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별로 1억~3억원으로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시군에서 발표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박 지사는 이번 순방 기간 중 "매년 3만6000명씩 줄던 인구가 최근 6000명, 지난해는 4000명으로 감소폭이 줄었다"며 "이는 기업 유치와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친환경 농수산업 육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수세계박람회·순천만정원박람회·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KTX 고속신선 등 도정의 굵직한 현안을 명쾌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기도 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I N V I T A T I O N

BOARDING PASS

NAME KIM/DAEHANMR
FROM SEOUL
TO NAIROBI
DATE 21JUNE12 J

SEAT 10A
WINDOW
FLIGHT KE 959

SKYTEAM ELITE BK12345678
TOTAL/REMAIN 380000/ 380000
KE 100 TIMES 380000MILES
ETKT 180 123456789C1 /001
C
001

KOREAN AIR

지상최대의쇼, 아프리카
지금, 당신을 초대합니다

아프리카가 선사하는 지상최대의 쇼
travel.koreanair.com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6월 21일부터 케냐 나이로비 주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빛의만평

- 김종두

우리大選은 北에서 시작?!